인민이 건재하고 건강해야 당도 있고 국가도 있다

— 조선로동당의 정치철학을 되새겨보며 —

생명은 인간에게서 그 무엇보다 귀중하다.

그러나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다 인간의 생명, 인민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는것은 아니다.

오직 이 땅에서만 인간중시, 인민사랑의 참다운 정치가 펼쳐지고있다.

* *

공화국은 세계유일의 인간중시, 인간사랑의 대화원이다.

이 행성에서 공화국에서처럼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고 귀중히 여기는 나라,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국가의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나라는 없다.

인민의 생명을 어떻게 보고 대하는가 하는것은 해당 나라의 정치를 가늠하게 하는 시금석이라고 할수 있다.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발생한 초기에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생명을 지키는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에 놓고 선제적이며 결단성있는 강도높은 차단봉쇄조치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세계도처에서 헤아릴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악성전염병에 걸려 죽어나가고 혈육과 친지를 잃은 사람들의 비통한 곡성이 매일같이 울릴 때에도 치사률이 높은 악성비루스의 류입을 2년 3개월이나 막는 세계방역사상 최장의 신기록을 세울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뜻하지 않게 악성비루스가 경내에 류입되였을 때에는 국가의 총력을 동원하여 3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최악의 보건위기를 평정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세계언론들이 이에 대해 세계적대재앙인 《COVID－19》사태를 놓고 조선이 제일먼저 고려한것이 인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면 유미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한것은 주식과 선거표, 화폐이라고 평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뿐이 아니다.

공화국에서는 자연의 광란으로부터 사람들의 귀중한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요당회의들에서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대책하였으며 피해지역 인민들의 건강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대조치들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피해지역으로 급파되고 온 나라가 총력을 기울여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 생활조건을 돌봐주고 마련해주었다.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도 인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국토관리, 생태환경보호사업을 전망적으로, 발전지향적으로 추진하며 평양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할데 대한 문제가 중요과업으로 제시되였다.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전투를 비롯하여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고있는 공화국에서 건설에서 제일 중요하고 선차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있는것도 공사실적을 내는것보다 로동안전규률을 엄격히 세워 건설자들의 귀중한 생명안전을 철저히 보호할데 대한 문제이다.

이번에도 공화국에서는 예견되는 태풍과 큰물로부터 귀중한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과 대책들을 다 취하였다.

인민의 생명을 제일 중대시하는 공화국이 아니고서는 생각할수 없는 사랑의 조치들이다.

인간중시, 인간사랑의 정치는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를 모실 때라야 실현될수 있다.

오늘날 공화국이 사상최악의 역경속에서도 국가사업전반이 철두철미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끊임없이 지향발전되고있는것은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장 중시하시며 최대로 관심하시는 문제는 인민의 생명안전과 건강이며 전체 인민이 건재하고 건강해야 당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 땅의 모든것이 다 있다는것이 그이의 드팀없는 신조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나운 비바람, 눈바람을 다 막아주는 아버지의 손길로, 밤깊도록 자식의 요람을 지켜 잠 못드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언제나 인민사수전의 최전방에 계신다.

하늘도 감복할 절세위인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에 의해 이 땅에서는 얼마나 많은 인간사랑의 전설들이 태여났던가.

공화국의 일부 지역들이 큰물피해를 받았을 때 인민들의 생명안전이 걱정되시여 한밤을 지새우시며 즉시적인 대책들도 세워주시고 몸소 험한 진창길을 헤치시며 피해지역에 제일먼저 나가시여 수재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착시키기 위한 중대조치들을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최대비상방역전의 그 엄혹했던 나날에도 경애하는 그이께서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몸소 보아주신 문건은 무려 1 772건에 2만 2 956페지에 달한다. 인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 얼마나 마음을 쓰시였으면 회의장으로 가는 복도에서조차 비상방역과 관련한 문건을 보시며 걸으시였으랴.

그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인가. 우리 당은 자기의 중대한 책무앞에 용감히 나설것이며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으로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안녕을 전적으로 책임질것이다. …

오늘도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소식이 전해진 그날 황해남도 강령군의 한 주민이 터친 감격의 목소리가 이 나라 인민들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려주고있다.

《오늘 너무도 믿기 어려운 사실을 전해듣고 우리모두가 소스라치게 놀라 서로 붙잡고 울었습니다. 방역대전의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고열속에 심히 앓으셨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원수님께서만은 부디 안녕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까지 하루하루 마음든든히 살아왔는데 그처럼 위중하게 앓으시면서도 인민을 지켜주시려 헌신의 낮과 밤을 이으시였다니 가슴이 막 터져오는것만 같습니다.》

이것을 어찌 한 주민의 마음속토로라고만 하랴.

세상에 인민을 위한다는 국가지도자는 많다. 그러나 목숨을 내대는 사생결단의 희생정신으로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 인민의 령도자는 이 세상에 오직 우리 원수님뿐이시다.

그이에게 있어서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맡기고 가신 자신의 피와 살점과도 같은 존재이다.

돌이켜보면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혁명령도의 전 기간 인민을 위한 문제들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였다. 특히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문제는 언제나 중대사중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였다.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 1㎏의 강재가 그처럼 귀했지만 강철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로동자들의 생명과는 절대로 바꿀수 없다시며 당시 나라에 하나밖에 없었던 원철로를 단호히 폭파해버리도록 하시고 모든것을 오직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복종시키고 지향시켜야 하는 가렬처절했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한 내각결정 제203호를 세상에 공포하도록 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이시였다.

조개잡이를 나갔다가 얼음장에 실려 망망대해로 떠내려가는 나어린 처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밤중에 비행기를 띄워주시고 만리대양 한복판에서 사경에 처한 무역선의 두 선원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수만금을 바다에 뿌리면서 배길을 돌리게 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인간사랑의 세계는 또 얼마나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었는가. 그 위대한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에 언제인가 날바다에서 세찬 풍랑을 만나 사경에 처했던 총련의 조국방문단도 전원 무사히 조국의 품에 안기는 기적이 이루어질수 있었다.

이렇듯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사랑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땅우에 인민사랑의 새 전설들을 끊임없이 수놓아가고 계신다.

경애하는 그이의 한없는 인민사랑에 의해 공화국에서는 옥류아동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류경치과병원, 보건산소공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묘향산의료기구공장과 같은 현대적인 병원들과 보건기지들, 휴양지들이 수많이 건설개건되여 인민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 *

장장 70여년을 헤아리는 공화국의 력사속에서 과연 인민은 어떤 존재였으며 어떻게 떠받들리우고 어떤 삶을 누리며 살아왔던가.

행복했던 나날에나 준엄한 나날에나 인민의 생명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의 정책은 언제한번 변한적이 없었고 이 나라 천만자식을 품어안고 찬바람, 비바람 다 막아주는 그 위대하고 자애로운 손길은 언제나 인민을 떠난적 없었다.

지금도 세상을 무섭게 휩쓸고있는 몹쓸 전염병으로부터 이 나라의 모든이들을 끝끝내 지켜냈다는 이 사실, 우리 당이 응당 마땅히 해야할 일이였고 응당한 성과라 해야겠지만도 왜서인지 지켜냈다는 이 감격의 기쁨에 눈앞이 흐려지고 모두가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고맙습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을 더 찾을수 없다고 하시던 자애로운 어버이의 심중의 고백이 메아리처럼 울려온다.

아, 인민의 어버이,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백두산천지의 저 맑은 물처럼 쉬임없이 솟구치며 억년 마를줄 모르는 영원한 사랑으로 인민을 품안아 지켜주고 보살펴주시는 이 나라 천만자식들의 위대한 어버이.

그 무한한 사랑과 더불어 세기와 세기를 이어오며 끝없이 꽃펴나는 인간사랑의 전설들은 위대한 수령을 모셔야 인간의 참다운 삶, 인민의 존엄과 행복이 있다는 철리를 가르치고있다.

본사기자 김강철

명승지에 일떠선 인민의 휴양소

경성군 상온포리에는 예로부터 이름난 온포온천과 함께 현대적인 정휴양시설들이 갖추어진 온포근로자휴양소가 있다.

휴양소에서는 전국에서 오는 로동자, 사무원, 농민들이 휴양의 한때를 보내군 한다.

이곳 휴양소에는 이런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다.

해방직후 함경북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주체36(1947)년 9월 어느날 이른아침 경성군 상온포를 찾으시였다.

온포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는 강을 가로질러 만들어놓은 허궁다리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기는 참 좋은 곳이라고, 물이 맑고 공기가 시원할뿐 아니라 경치도 아주 아름답다고 하시였다.

허궁다리밑으로는 구슬같은 맑은 물이 흐르고 주변에는 기묘한 바위들이 우뚝우뚝 솟아있고 갖가지 나무들이 우거져 풍치는 정말 아름다웠다.

허궁다리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리밑으로 흐르는 맑은 물을 바라보시며 예로부터 우리 나라를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일러오는데 경성은 금강산, 묘향산과 더불어 조선의 명승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감회깊은 어조로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 나라가 해방되면 금강산이나 경성과 같은 명승지들에 휴양소를 짓고 우리 인민들이 모두 휴양하게 하자고 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가슴이 뭉클 젖어올랐다.

나라를 찾기 위해 그 험난한 길을 걸으시면서도 일제의 발굽밑에서 신음하며 천대와 멸시속에 허덕이는 우리 인민에게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실 구상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물과 숲이 어울려 더욱더 아름다운 경치를 둘러보시며 이제는 나라가 해방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였는데 여기에 휴양소를 잘 지어 근로자들이 마음껏 즐기며 휴식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경치의 아름다움에만 취해있던 일군들은 다시금 가슴이 후덥게 달아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름다운 경치를 보시면서도 먼저 우리 인민을 생각하시였고 인민들에게 더 훌륭한 휴식조건을 마련해주실 구상을 하시였던것이다.

이윽고 그이를 모시고 떠나가는 일군들의 귀가에는 금시 풍치좋은 이곳에서 울려퍼질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들리는것만 같았다.

본사기자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인민이냐, 《돈술》이냐

예로부터 의술은 인술이라고 하였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 어진 기술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우에 돈을 놓는 남조선에서 의술은 인술이 아니라 《돈술》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 돈많은 부자들은 수만금을 탕진하면서 치료를 받아도 돈없는 빈곤층은 온갖 질병속에서 시달리고있다.

남조선의 병원들에서는 몇푼의 돈을 위해 환자들을 상대로 한 위법행위들도 거리낌없이 감행되고있다.

몇년전 남조선의 어느한 잡지는 《병원은 합법적인 범죄조직인가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병원내에서 자행되고있는 《의료법》위반행위들에 대하여 이렇게 폭로하였다.

《의료법위반의 또 다른 사각지대는 료양병원이다. 료양병원은 받는 금액이 일정하기때문에 환자에게 쓰는 돈을 아낄수록 병원수익이 올라간다. 그래서 일회용품의 재사용은 말할것도 없고 감염위험때문에 한번 쓰고 버려야 하는 수액 하나를 한두달씩 여러명의 환자에게 돌려가며 쓴다고 한다. 또 혈액이 묻은 주사바늘 등을 씻어서 재사용하거나 의료용폐기물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환자의 배설물이나 체액 등으로 오염된 폐기물을 일반쓰레기통에 몰래 버린다고도 한다.

더 끔찍한것은 병원들이 환자들의 고통에 무감하다는 점이다. 한 료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원은 말기암환자에게 투여되는 진통제를 원래 쓰던 용량의 10분의 1로 줄여서 주었다고 한다. 진통제를 투여하면 편안해질수 있는데 진통제값 몇푼을 아끼려고 삶이 얼마남지 않은 환자를 고통속에서 죽어가도록 방치하고있다니 너무 끔찍했다. … 이처럼 의료법위반은 주로 병원이 리윤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개인일탈이 아니라 병원이 저지르는 조직적인 범죄인것이다.》

그러면서 기사에서는 서울의 한복판에는 이런 범죄자들이 가득한 소굴이 적지 않지만 그들스스로는 자신이 범죄자라는 인식이 별로 없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병원은 합법적인 범죄조직인가고 의미심장한 물음을 제기하였다.

남조선의 병원들에서 벌어지는 비인간적행위는 이뿐이 아니다.

남조선의 병원들에서는 유명한 의사를 내세워 광고를 요란하게 하여 환자들을 받아들이고는 실지 수술은 다른 전공부문의 의사나 애당초 자격도 갖추지 못한 의사들이 집도하는 일명 《대리수술》, 《유령수술》이 성행하고있어 사람들의 생명이 롱간질당하고있다.

어떤 병원들은 의사들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것으로 하여 《살인공장》이라는 오명을 쓰고있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있다.

그렇다면 남조선의 한심한 보건실태가 개선되지 않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다른데 있지 않다. 사람들의 생명을 한갖 돈벌이수단으로밖에 보지 않는 병원들의 그릇된 관점과 돈을 위해서라면 그 무슨짓도 서슴지 않는 썩어빠진 남조선사회제도와 생활풍조에 있다.

본사기자 전명진

함께 울고웃으며 사는 화목한 대가정

아름다운 생활의 향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덕과 정으로 따뜻한 공화국에서는 자기보다 동지들과 집단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 돕고 이끄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날마다 꽃펴나고있다.

영예군인과 맺어진 인연

몇해전 청진객차대 청진렬차검사중대 박영호는 역에 내리는 두사람을 보게 되였다.

녀성의 부축을 받는 남성은 얼핏 보기에도 몸이 몹시 불편해보였다.

급히 그들에게로 다가간 박영호는 그 남성을 업고 천천히 승강대를 내려섰다.

초면에 안됐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거듭 말하는 그들에게 박영호는 흔연히 웃어보이였다.

이어 박영호는 남성을 앉힌 세바퀴차를 밀고 역밖으로 향하였다.

알고보니 몸이 불편한 남성은 영예군인이였는데 병원치료를 받고 오는 길이였다.

객차에 대한 기술검사중이라 더 지체할수 없었던 박영호는 영예군인을 따뜻이 바래주고 렬차로 돌아왔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영예군인의 이름과 함께 집주소가 떠날줄 몰랐다.

그로부터 얼마후 그는 보약재들과 영양식품을 준비해가지고 청진시 신암구역에 사는 영예군인의 집을 찾았다.

수년세월 한식솔의 정을 나누는 영예군인과 박영호와의 인연은 이렇게 맺어졌다.

《우리 가정수첩》

얼마전 온천군 금당농장의 제4작업반장인 리근주는 하루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속에서 한 농장원을 찾았다.

검스레한 얼굴에 미소를 담은 작업반장은 그의 손에 꾸레미를 들려주며 오늘이 동무 어머니의 생일인데 함께 가서 축하해주고싶다고 말하였다.

순간 젊은 농장원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작업반의 대소사를 맡아안고 언제나 바쁘게 뛰는 작업반장이 자기 어머니생일까지 기억하고있을줄이야…

문득 작업반장이 늘 품고 다니는 작은 수첩이 떠올랐다.

작업반원들속에서 《우리 가정수첩》이라고 정답게 불리우는 작업반장의 수첩, 거기에는 작업반원들을 한식솔로 여기며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는 리근주작업반장의 진정이 뜨겁게 어려있었다.

그가 그 수첩을 가슴에 품고 농장원들을 위해 걸은 밤길은 얼마이고 남모르게 바친 땀방울은 그 얼마였던가.

작업반을 화목하고 단합된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 기울이는 그의 노력이 있어 오늘 작업반은 모든 면에서 농장의 앞장에 선 단위로 자랑떨치고있는것이였다.

인정많은 작업반장의 모습을 바라보는 농장원의 가슴에 이름할수 없는 그 무엇이 그들먹이 차올랐다.

사랑과 정이 넘치는 집단의 한 성원된 긍지감을 느끼며 농장원은 작업반장과 나란히 집으로 향하였다.

답사기간에 받은 생일상

청봉혁명전적지답사숙영소의 김장헌소장은 하루사업을 끝마친 저녁이면 의례히 숙영소에 든 답사생들의 명단을 펼쳐보군 한다.

며칠전에도 그는 여느때와 같이 명단을 펼쳐들었다.

답사생들가운데 다음날 생일을 맞게 되는 한 학생이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 화학부 배현정학생이였다.

(집을 멀리 떠나 외지에서 생일을 맞는 그에게 우리가 생일상을 차려주자.)

김장헌소장은 종업원들과 함께 서둘러 생일상을 차릴 준비를 하였다.

같이 온 답사생들에게 그의 식성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답사기간에 맞는 생일을 뜻깊게 추억할수 있게 기념품도 마련하였다. 종업원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음식들을 마련하고 혹 빠진것이 있을세라 마음쓰는 그의 모습은 친혈육과도 같았다.

다음날 아침 뜻밖에도 푸짐한 생일상과 축하의 꽃다발, 뜻깊은 기념품까지 받아안게 된 배현정학생은 물론 그의 학급동무들도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본사기자 한일혁